

창간기획

MZ, 불교를 만나다

MZ, 허투루 여기면 불교서 'Run'친다

글=노덕현 · 임은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욕망곰탱이
24세, MBTI 유형 ESFP(자유로운 영혼)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모태불자다. 할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반야심경 독송을 듣고 자랐고, 향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찐불자. 동아대 재학 중으로 '하심'이라는 불교 가르침을 항상 지니고 산다.

PinkPiggy
22세, MBTI 유형 INFP(중재자)

21학번 새내기로, 대학에 들어오면서 불교동아리 회장이 되며 이른바 불며들었다. 봉은사에서 수계받은 불린이로, 불교교리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불교계 활동을 하고 싶은 열정은 가득이다.

도선KIDS
20세, MBTI 유형 ENFP(재기발랄 활동가)

동국대 1학년인 도선키즈는 도선사에서 연등달기 봉사를 하며 불교에 입문했다. 어린이법회 간사를 맡고 현재는 도선사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 중이다. 사학 전공으로 불교사에 관심이 많은 불교신생아.

동국대비와이
22세, MBTI 유형 INTP(논리적 사색가)

동국대 불교학부 소속이지만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은 아니며, 학교에서 불자가 되었다. 불자이기도 하지만 힙합동아리 회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 할 정도로 불교 외의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다.

MZ세대는 1980~1994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M세대)와 1995~2004년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분명히 기성세대와는 다르다.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대두로 정보의 보편화 속에서 자라, 합리성을 주장하고, 자녀들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 탈권위, 개인의식, 자기주장이 강하다. 환경과 평등과 공정, 사회정의 등에도 관심이 많다.

불교 내부에서도 MZ세대를 대하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 불자 선배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적 성장에 따른 풍요로움을 맛본 세대다. 사회 발전기에 많은 고생도 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도 따라오던 시대를 살았다. 이제는 다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인 MZ세대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처지가 극과 극으로 나뉘며, 일부 MZ는 부모들보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이들을 위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때다.

한국갤럽이 2021년 조사한 종교인(종교를 믿는 이) 비율을 보더라도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의 종교인 비율은 2004년 45%에서 2014년 31%, 2021년 22%로 급감했다.

다행이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의 호감도는 높은 편이다. 불교에 대한 호감을 표한 이들은 20%로 가톨릭 13%, 개신교 6%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웃종교에 비해서란 전제조건에서 보듯이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를 답한 이들이 61%로 늘었다. 1인가구의 증가와 여가 스포츠 등 종교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체종교의 증가, 종교커뮤니티를 대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발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비교적 높은 종교호감도만 바라보고 안주할 수 있을까.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후 첫 행보로 MZ세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만큼 불교계가 바라보는 MZ세대에 대한 시선은 간절하다. 미래불교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지금, MZ세대가 생각하는 불교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았다.

Q MZ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거지?

욕망곰탱이: 불교는 생활에서 접점이 없어. 템플스테이라도 해야 사찰에 간 것 같고, 불교법회에 참여해야만 불자인 것같은 느낌이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불교가 없다보니 나와는 상관없는 종교란 이미지가 커.

핑크피기: 학교들어가기 전에는 종교가 없었는데, 무교일때는 불교는 나와는 동떨어진 집단, 나와 상관없는 스님들이 계신 곳이란 생각이었어.

동국대비와이: 객관적으로 보면 불교 이미지는 '올드' 해. 교회는 지나다닐 때 군데 군데 보이는데, 사찰은 산중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

도선키즈: 나도 동국대 입학 전에는 종교가 없었어. 부처님오신날에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비빔밥 먹는 수준이었는데, 동국대에서 불교 관련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됐어.

욕망곰탱이: 이야기 듣다보니 MZ가 불교를 접하는 과정 중에 종립학교의 존재감이 크네? 종립학교가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Q 오늘 모인 친구들은 그래도 불자들이잖아? '불자'라고 다들 드러내지 않는데, 불자라고 하면 신기해 하지 않아?

욕망곰탱이: 다들 '스님 될거냐' 고 물어보지. 친구들 모임가면 나한테 'OO 스님 오셨다' 고 놀려. 종교로서, 재가자로서 불자인 경우도 많은데, 워낙에 다들 안드러내다보니 그게 더 커진 것 같아.

핑크피기: 나 같은 경우에는 수계받고 나서 불자라고 자랑하고 다녔어. 또래들은 수계와 법명이라는 것도 아예 몰라. 세례와 세례명은 대부분 알아도 말이지.

욕망곰탱이: 맞아. 세례나 영세는 알아도 수계는 모르더라고. 수계식 참여했다고 하니 그게 머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군에서 포교활동이 중요한 것 같아. 군대서 수계, 영세, 세례 다 받았는데, 각 종교를 기본은 알게되는 계기였어.

Q 대학 생활하면서 종교가 친우관계에서 장벽이 되진 않아? 가령 소개팅서, 이상형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교회'에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면?

욕망곰탱이: 종교관이 다른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면 부담을 느낄거 같아.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님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기독교인이었어. 싸우기 싫으니 결국 개종하시더라고. 많이 안타까웠어.

B4면에 계속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체법, 석일두, 석혜천, 석혜암, 석진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 교육원장 석동은 | 기획원장 석담허 |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 의전원장 석법도 | 어산장 석도암 |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 총무부장 석성덕 | 감찰부장 석성현 |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 사회부장 석자광 | 사서부장 석성우 |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 문화부장 석성원 | 포교부장 석보현 |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 지원국장 석해인 | 봉사국장 석성운 |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 포교국장 석성원 | 의전국장 석균중 | 수행국장 석성오
종무국장 석성안 | 문화국장 석원종 | 의식국장 석성혜 | 사서국장 석성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 부장 석지현 |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현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장 학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총무 대각심(김경숙)
임원 혜명심(박현숙)
임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장 묘각(이재인)
부원장 혜정(이영숙)
국장 불심화(정형숙)
무용 무애심(박순애)
연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 홍보부장 원명 |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 부산부장 혜성 |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 경기부장 자운 |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 전남부장 혜명 |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 포교국장 청운 |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 통영국장 덕인 |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 포교국장 혜림 |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 봉화국장 혜정 |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전화 02)303-5612